

# 보 도 설 명 자 료

(’20. 6. 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사업은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 
처분시설 건설사업으로 규제기관 인허가 심사 장기화에 따라  
본공사 착수가 순연되어 ‘20년 불용예상 금액을 조정한 것임  
(문화일보 6.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사업은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 
시설 건설사업으로 규제기관 인허가 심사 장기화에 따라 본공사  
착수가 순연되어 ‘20년 불용예상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.

- 동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사업으로 금년 예산 감액분은 ‘21년  
예산(안)에 추후 편성될 예정입니다.

◇ 6월 10일자 문화일보 <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예산은 650억원 삭감>  
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## 1. 기사내용

□ 중·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인 ‘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’ 건설  
예산을 650억원 삭감하는 등 탈원전 정책 가속화에 코로나19를 악용  
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

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금년도 예산이 감액된(650억원)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설사업은 경주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으로서,
  - 경주·포항지역 지진 발생 이후 규제기관의 처분시설 안전성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동 사업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됨에 따라, 본공사 착수 순연이 예상되어 공사비를 감액한 것임
  - 동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사업으로 금년 감액분은 '21년 예산(안)에 추후 편성될 예정임

※ 문의: 원전환경과 최경순 사무관(044-203-5384)